

## 이젠 '퇴장' ... 기술 발달로 사라질 자동차 부품들

휴대용 오디오 역사의 한 장을 장식했던 제품이 있다. 바로 소니의 '워크맨'이다.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워크맨'은 디지털 음악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무선호출기 비퍼는 휴대전화 기술의 발달로, 플라로이드 즉석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에 밀려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그렇다면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사라질 운명을 맞은 자동차 부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imagazinekorea.com이 그것들을 소개했다.

### ■ 운전대

운전으로부터의 해방을 생각해보자. 아침 출근길에 내 차에서 잠을 자고 직장 앞에 내리면 차가 알아서 집으로 가거나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술을 많이 마셔도 대리기사 없이 집에 갈 수 있다. 길이 막혀도 부담이 적다. 어차피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이 외에도 운전으로부터의 해방은 인간에게 시간적 여유로움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 많은 이로움을 줄 것이다.



물론 "자율주행이 운전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것"이라며 자율주행 시대를 마쁘지 않아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운전대로부터의 해방을 맛보게 된 후에도 계속 운전을 좋아할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이동 중인 자동차 안에서 레이싱게임을 즐기는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

### ■ 라디에이터그릴

라디에이터그릴은 자동차의 인상을 결정하는 핵심 디자인 요소 중 하나다. 차 앞쪽 한가운데 자리한 데다 크기과 모양, 안쪽 패턴으로 차의 성격까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그릴을 커다랗게 키우고 격자무늬 망을 씌우면 고성능 차의 느낌을 강하게 풍길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에겐 라디에이터 그릴이 무의미하다.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전기모터와 배터리에서 열이 발생하지만 큰 라디에이터와 식혀줄 구멍이 필요하진 않다. 차체 아래로 들어오는 바람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에는 그릴의 형태만 남았을

뿐 구멍은 막혀 있다. 이를 통해 공기저항을 줄이고 전 기차의 느낌도 강조한다.

### ■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는 차선을 바꿀 때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스티어링휠을 꺾었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사이드미러는 오랜 시간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최근 많은 자동차 제조

사들이 사이드미러 대신 소형 카메라를 탑재한 미러리스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BMW, 볼보, 혼다, 현대·기아 등이 미러리스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들이 미러리스 차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연비 절감이다. 양쪽에 튀어나온 사이드미러는 무겁고 크기도 상당하다. 아무리 작고 뾰족하게 만든다고 해도 공기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를 사용하면 무게와 공기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사각지대도 없앨 수 있다. 사이드미러는 시야각이 좁다. 운전자가 보지 못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 물론 카메라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하지만 시야각이 30도에서 80도에 이르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보다는 시야가 훨씬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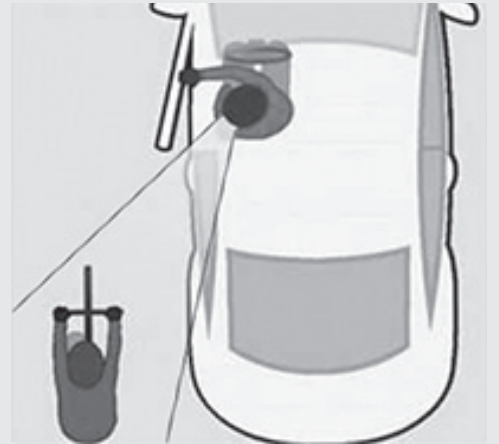
### ■ 헤드램프

최초의 헤드램프는 아세틸렌 또는 기름에 불을 붙여 빛을 밝혔다. 때문에 반사경이 컸고 연료통도 있었다. 전기로 빛을 내기 시작한 건(필라멘트 전구 타입) 1898년부터였다. 하지만 반사경은 여전히 거대했다. 이런 헤드램프의 형태는 2000년대까지 이어졌다.

헤드램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작고 밝은 LED(또는 레이저 다이오드)와 이를 움직이는 제어장치를 쓰면서 빛을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양만큼 나눠 쓸 수 있게 됐고 헤드램프의 크기 역시 확연하게 작아졌다. 이제는 보닛 일부분을 빛을 투과할 수 있게 만들어 그 안에 램프를 집어넣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보닛이나 범퍼에 녹여내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든 헤드램프는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조명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헤드램프가 없으면 디자인 자유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 자동차에서 내릴 때 '오른손'으로 차 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



자동차 운전자들이 차량 운행을 멈추고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왼손으로 자동차 문을 여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 문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네덜란드에서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차 문을 열 때 '오른손'을 사용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네덜란드는 '자전거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도로를 달리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차 문을 여는 것은 차 옆을 지나가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다.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차 문을 열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돌아가면서 백미러를 주시하게 되며 후방과 차 바깥쪽 거리를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진다. 반면 왼손으로 열 경우에는 시선이 돌아가지 않고 바로 차 문을 열기 때문에 옆을 지나치는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성이 커진다.

네덜란드 운전자들의 오른손 문열기는 '더치 리치(Dutch reach)'라고 불리며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일상화 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운전 학원에서는 차 문을 열 때 문과 가까운 왼손이 아닌 문에서 먼 오른손으로 차 문을 열도록 가르친다.

'더치 리치'는 전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는 운전 문화이다.

##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Implant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400

잇몸치료  
~~\$600~~ → \$400

틀니  
~~\$1200~~ → \$850

**KMC Dental Group**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